남북관계 추진현황

2005. 8. 3(水)

통 일 부

1. 북핵문제(6자회담) 동향

o 북한은 2.10 외무성 성명 발표 이후 6자회담 참여를 위한 명분 제공을 요구하며 회담 참여를 지연하는 한편, 핵보유 기정사실화를 기도

- 6자회담의 ‘군축회담’ 주장(3.31), 폐연료봉 인출 완료 발표(5.11) 등

o 정부는 유관국과 외교적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, 차관급회담 등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지속 촉구

- 특히 대통령특사-김정일 위원장 면담(6.17)시에는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'중대제안'을 설명, 북측의 긍정적 태도변화를 촉구

  *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측 구상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, 한반도 비핵화 원칙 유효, 7월중 6자회담 복귀 가능성 등을 언급

o 이러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유관국들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, 북측이 7월말 6자회담 복귀를 결정(7.9),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확보

- 7.29부터 북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

- 우리로서는 대화의 촉진자로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지속,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총력

※ 우리의 적극적 · 주도적 역할

△한미정상회담 등 대통령의 순방외교 노력
  - 북한의 전략적 결단, 유관국의 유연한 접근 촉구
△6.17 면담시 6자회담 재개 및 한반도 비핵화 촉구, 중대제안 설명
△6자회담 과정에서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, 참여국간 논의의 기초 제공
△6.15 5주년 계기 등 남북관계 개선노력을 통한 북핵해결 여건 조성

2. 「중대제안」의 배경과 세부조치 추진

o 「중대제안」: 「우리의 대북 직접 송전계획」

-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
- 현재 중단상태인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
- 200만㎾의 전력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송전선로 건설에 착수해서
- 3년 이내에 북핵 폐기와 함께 송전방식에 의해 전력을 공급

□ 추진 배경

o 「중대제안」은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종합적 고려하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, 남북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국익차원에서 결정

①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 핵문제를 조기에 그리고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

② 추가비용 부담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('94년 제네바합의에 따른 경수로 건설에 들어가게 될 비용으로 추진)

③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하고, 남북의 공동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

□ 세부조치 추진

o 제4차 6자회담 이전 6자회담 참가국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측 제안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제고

o 4차 6자회담에서 우리측의 「대북 직접 송전계획」 추진 입장을 표명,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촉진

o 관계부처 협조하에 「대북 직접 송전계획」을 구체화하고, 투명한 대국민 설명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확보해 나갈 예정

3. 개성공단 건설사업

□ 현 황

o 임시 폐수처리장 완공(4.28), 시범단지 도로포장 완료(5.21), 1단계 울타리(8.8km) 공사완료(6.15) 등 개성공단 개발은 차질없이 진행

- 현재 4,400여명의 남북 인원이 근무(남 400여명, 북 4,000여명)

  * 북측인력 : 입주기업 2,600여명, 건설공사 1,100여명, 지원기관 300여명

o 시범단지는 금년중 본격 가동을 목표로 공장건축 추진

- 15개 입주기업중 4개 기업은 가동, 11개 기업은 공장건축중

  * 리빙아트, 신원, SJ테크, 삼덕통상 등 4개 기업은 제품생산중

o 1단계 100만평 부지공사는 7.31 현재 78%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.

□ 추진방향

o 시범단지 본격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

- 인프라 조기 구축, 보험·의료·산업안전 등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

o 본단지 분양은 기반시설공사 진도, 통행·통관, 인력확보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,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

- 1차 5만평을 분양하되, 전략물자·원산지 문제가 없는 업종 및 기업을 중심으로 아파트형공장, 협동화단지 등도 포함

  * '05.8.1 1차 5만평에 대한 분양공고 및 '05.8.5 투자설명회 개최

o 통행·통관 절차 간소화, 법·제도 정비 등을 적극 추진

- 자동인식기술(RFID)을 활용한 통행 및 전략물자시스템 구축사업, 개성공단 관련 법·제도 연구용역사업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

4. 철도·도로 연결

□ 현 황

o 철도의 경우 남북은 제9차 경추위('04.6.5) 및 제10차 경추위('05.7.12)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'05년 철도개통을 목표로 연결공사를 진행 중임.

- 우리측은 경의선 구간은 공사를 완료했으며, 동해선 구간은 군사분계선-통전터널 구간(3.8km) 공사를 완료하고 통전터널-저진역(3.2km) 구간 공사 진행 중

- 북측은 경의선·동해선 모두 궤도부설을 완료하고, 신호·통신·전력계통 공사 및 역사공사 등 잔여공정 진행 중

o 도로는 경의선·동해선 모두 연결구간 공사가 완료되어 '04.11부터 인원·차량·물자의 원활한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음.

《남북 철도·도로연결 공사 현황》

(2005.7.29 현재)

구 분		우 리 측		북 측	
		구 간	추 진 현 황	구 간	추 진 현 황
경의선	철 도	12km	공사 완료('02.12.31)	15.3km	본선 궤도부설 완료
	도 로	5.1km	공사 완료('03.10.31)	7km	포장공사 완료('04.11.30)
동해선	철 도	7km	군사분계선-통전터널 구간(3.8km) 공사 완료, 통전터널-저진역(3.2km) 구간 공사 진행 중	18.5km	본선 궤도부설 완료
	도 로	4.2km	공사 완료('04.10.31)	20km	포장공사 완료 ('04.11.30)

□ 추진방향

o 남북은 '05.8월 철도연결구간 공사실태에 대한 공동점검을 거쳐서 '05.10월 하순 철도시험운행 및 도로개통식을 개최한 후 '05 연내에 철도를 개통할 방침

*** 공사실태 공동점검 : 경의선(8.18~20), 동해선(8.23~25)**

o 이와 함께 남북철도·도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주력할 방침

- 8월초로 예정된 열차운행합의서 및 차량운행합의서의 발효에 따라 남북간에 철도운영공동위원회·도로운영공동위원회 구성 및 남북간 열차운행사무소·차량운행사무소 등 개소 추진

- 남북간 철도운영공동위원회 및 도로운영공동위원회 구성 후 남북간 열차·차량 운행의 세부적 사항 규정을 위한 부속서 논의도 병행

5. 금강산 관광사업

□ 현 황

o 금강산 관광은 '05년 1~6월간 관광객이 총16만363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('04.1~6월 82,520,) 98%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성장 중

- 김정숙 휴양소 개보수, 가족호텔, 방갈로, 불교도 숙소 등 숙박시설도 지속 확충 중

*** 금강산 관광객은 '98.11월 관광개시 이후 총 1,017,360명('05.6월말 기준)**

o 정부도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관광지구내 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하고, 통일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중·고생 및 통일교육 담당 교사 대상으로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를 지원

* '04.12.3~'05.2.27, 총 19,322명 참여

□ 추진방향

o 사업자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지속적인 관광시설 확충을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

- 자가용관광 실시와 골프장, 가족호텔 등 관광시설 건설을 통해 안정적 수익기반 마련

- 특구종합개발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, 활발한 투자유치 등을 통해 금강산 특구 개발을 가속화

*** 「부동산 규정」이 제정('04.9.21)됨으로써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**

o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

- 동해선 육로 통행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체결 및 금년말까지 철도 연결 완료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물적·제도적 환경 조성

6. 사회문화교류 추진

□ 현 황

o 6.15 공동선언 5돌을 기념하기 위한 6.15 통일대축전에 남북당국·민간이 참여한 이후 남북화해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교류도 활발히 진행

o 광복 60년을 남북당국·민간이 공동으로 기념하기 위한 「자주, 평화, 통일을 위한 8.15민족대축전」(약칭:8.15민족대축전)이 8.14-17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

- 대표단 규모는 북측민간대표단 100명, 북측축구단 63명, 남측민간대표단 400명, 해외측 민간대표단 150명임

- 행사내용은 통일대행진과 개막식, 8.15민족대회(본행사), 부문별 모임, 남북통일축구경기, 체육 및 유희경기, 연회, 폐막식 등으로 진행

- 남북통일축구경기는 남자경기는 8.14 19:00, 여자경기는 8.16 18:00 개최

o「6·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」가 남측작가 97명, 북측작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7.20-7.25, 평양과 백두산 등지에서 개최

- 남북의 문인들은 [민족문학인협회]창설, [통일문학상]제정, 기관지 [통일문학] 발행 등에 합의

o 남·북·일·중 4개국 남녀축구대표팀이 참여하는 「동아시아축구대회」가 7.31-8.7 대전·전주·대구에서 개최

- 이를 위해 북한남녀축구대표팀 67명이 7.26 고려항공편으로 입국(남자선수단 24명, 여자선수단 22명, 임원 등 지원인원 21명)

□ 추진방향

o 8.15민족대축전이 광복 60주년을 기념하고, 제 2의 6.15시대를 선언하는 범민족적 축전이 되도록 내용과 형식을 준비

- 8.15행사 전체 일정이 범국민적 관심과 호응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

o 정부는 장관급회담시 당국간 합의한 북관대첩비 반환과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송환 등 민족사적 문제 해결 주력

o 학술·종교·예술·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교류 사업의 활성화 지원

- 장관급회담 재개시 「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」 구성 추진을 통해 사회문화교류의 제도화 추진

7. 대북 인도적 지원

□ 현 황

o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△우리의 부담능력, △국민적 공감대, △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

- 정부차원의 직접 지원은 식량 및 비료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식량·보건의료·어린이 지원사업에 참여

*** '05년 비료 35만톤 무상지원, 식량은 차관방식으로 50만톤 지원중**

*** '05년 WHO 말라리아 방제사업 지원 (81만불), UNICEF 어린이 영양개선 사업 및 WFP를 통한 지원도 검토중**

- 민간차원에서는 북한의 농업개발 및 보건의료분야,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추진

*** '05년 27개 대북지원 단체 30개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**

□ 추진방향

o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긴급구호와 농업·보건분야를 중심으로 한 복구지원을 병행하면서 영유아·산모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검토

o 민·관협의체인 「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」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북지원 진행

-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북한의 자립을 돕는 목적지향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

- '95년부터 시작된 대북지원을 정리하고 인도적 긴급구호 상황 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 준비 끝